

# 도 복지 예산 25%… 노인복지 분야 최다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조9726억원 역대 최고  
3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급 등 체감도 높일 계획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25%를 넘어서셨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은 2023년 1조5613억원(전체 예산 대비 22.10%), 2024년 1조6952억원(23.51%), 2025년 1조7875억원(23.59%)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10.4% 늘어난 1조9726억원(25.33%)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도는 “민선8기 공약인 사회복지 예산 25%를 달성한 것”이라며 “돌봄 체계 강화와 취약 계층

지원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했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3396억원 등이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준다.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대상 중식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대상 월 10만원의 보육료 지원도 시작된다.

이 중에서 손주돌봄수당은 이달 2~15일 읍면동을 통해 신청자가 접수되면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2월부터 활동이 이뤄지고 수당 지급은 3월부터 가능하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넓어진다.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의 보호 대상 아동 문화활동비는 초·중·고 모두 1만원씩 오른다.

보육·돌봄 환경 개선책으로는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져 교사 부

담을 넓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렸다. 노인과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에 따른 수급자 확대, 제주시 지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개소 추가 설치,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1833-9514) 운영,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등이다.

한편 도는 3월 27일부터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연계를 강화해 도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시 지역 29개 복종화 공영주차장 등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3곳에 상반기 내에 승강기가 설치된다. 사진은 칠성골 공영주차장

## 복종형 공영주차장 3곳에 승강기 설치

상반기 칠성골·법원 북쪽·인제 주차장에

제주시는 복종형 공영주차장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3곳에 승강기를 설치한다.

시는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와 이용 안전을 위해 총사업비 12억원

을 들여 칠성골, 법원 북쪽, 인제 공영주차장 3곳에 승강기 설치사업을

2월부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주차장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2015년 8월)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차 전용 건축물이다. 관내 29개 복종형 공영주차장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현재 승강기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절차를 준비 중으로,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병규 시 차량관리과장은 “복종형 공영주차장은 도심 주차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3곳

에는 승강기 미설치로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며 “상반기 내에 승강기가 설치되면 주차장 이용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업보조사업 73억 투입… 이달 16일까지 신청**  
**제주시, 감귤 등 19개 사업… 2월 대상자 확정**

제주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원예특작·농산물 유통·감귤·식품산업 등 4개 분야 농업보조사업을 이달 16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총 19개 사업에 73억4700만원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원예특작이다. 시는 밭작물 상품성 향상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 8개 사업에 43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2억원 ▷ 밭작물 중형농기계 8억원 ▷ 소형농기계 15억원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6억1000만원) ▷ 소규모 저온저장고 2억5000만원 ▷ 육묘장시설 1억5000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7000만원 ▷ 농경지 암반 제거 7억 5000만원 등이다.

농산물유통 분야는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7억원 ▷농산물 포장재비 6억원 등 2개 사업을 지원한다.

감귤 분야는 ▷시설 과채류와 기타과수 수정별 6000만원 ▷방풍수정비 4억5000만원 ▷토양피복재배 5억원 등 6개 사업에 10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식품산업 분야는 농산물 고부가 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해 ▷지역브랜드 마케팅 3억5000만원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2억5000만원 ▷농산물 가공장비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기준과 신청 서식은 제주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농업보조사업 접수 후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운영

1~2월은 야영테크 절반만 개방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운영 기간을 기존 3~12월에서 1~12월로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영기간 변경은 동절기 야영 수요 증가에 따른 이용객 요구와 최근 동절기 평균기온 상승, 적설 빙ako 감소 등 여리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방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다만 동절기인 1~2월에는 안전을 고려해 전체 야영테크 30개소 중 15개소만 개방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개방한 붉은오름자연

휴양림 숲속야영장은 매년 1만여 명이 찾는 히팅 명소다. 캠핑센터에서는 취사와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또 2025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뽑는 ‘가족·어린이 친화 분야’에서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희창 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최근 겨울철에도 야영을 즐기려는 이용객들의 문의와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후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중 운영을 결정했다”고 했다.

숲속야영장 이용 예약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림청 통합 예약 시스템 ‘숲나들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우선 추진돼야”

고령사회연구센터, 3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연구

제주 고령친화도시 사업의 우선순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 연구센터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제주 지역 제3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026~2027) 수립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안가영 전문연구위원)를 13일 발간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43개 세부사업별 중요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이 1순위로 꼽혔다. 장기요양기

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력 부족과 이탈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 개선과 교육·취업 지원 등 전문적 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 때문이다. 이어 ▷제주가치돌봄 지원 ▷제주형 마을 중심 우리 마을 돌봄센터 운영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고령자 경제 활동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특화 사업 순으로 10위 안에 자리했다.

진선희기자

## 여성 1인 가구·사업장 호신용품·비상벨 지원

제주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성에게 호신용품과 비상벨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사업’과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는 주거 안전 용품과 호신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홀로 사는 여성에게 지원된다.

또 제주도는 호신용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는 여성을 상대로 자기방어 훈련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사업은 여

성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비

는 총 1100여만원 규모다. 이상민기자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맷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증사업등록번호

010-4450-4316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 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